석전 스님 인문 정신을 살피다

동국대 한국문학硏 학술대회
석전 스님 발굴자료 등 소개
스님 전서 편찬 방향성 제시
2028년까지 전서 발간 계획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6월 27일 열린 '석전 박한영과 전서 편찬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의 인문 정신을 살피고 발간 추진 중인 스님의 전서 편찬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한국문학연소(소장 김상일)는 6월 27일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석전 박한영과 전서 편찬'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사업은 윤재웅 총장이 총장 선거 당시 건학이념 구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동국대 개교를 이끌었던 선지식 석전 스님을 선양함으로써 동국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석전 전서 간행팀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업 초기 단계에 발굴한 신자료의 가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할 전서 편찬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 교수는 '석전 박한영의 인문정신' 기조 발제에서 석전 스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석전 스님에 대한 연구 방향을 인문 정신과 한국 근대정신사, 동아시아 지성사의 관점에서 확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전 박한영의 불교사 이해와 한국불교 인식〈불교사람요〉와 〈각종강요〉'를 발표한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1918년 중앙학림에서 강의한 내용인 〈각종강요(各宗綱要)〉와 불교의 역사를 기술한 〈불교사람요(佛教史攬要)〉를 중심으로 석전 스님의 불교사 이해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김용태 교수는 서울의 불교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불교사 강의가 이뤄졌고, 이를 매개로 한국불교 관련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폈다.

김성연 동국대 K학술혁신단 교수는 '신자료를 통해 본 석전의 임제종 운동'을 통해 석전 스님이 추진했던 임제종 운동을 다시 톺아봤다. 임제종 운동은 1910년 원종(圓宗)의 종정 이회광이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부속시키려 했던 매종(賣宗) 행위에 대한 보종(保宗) 운동으로서 설립된 임제종(臨濟宗)의 활동을 이르는 명칭이다. 석전 스님은 임제종 운동을 이끈 주체 중 한 명이다. 논문에서는 몇 해 전 송광사에서 소개된 필사본인 〈간독(簡牘)〉을 통해 임제종의 핵심 인물이었던 석전 스님의 시대인식을 조명했다.

'석전 박한영의 심성론과 학리 불교'를 발표한 김영진 동국대 불교문화학부 교수는 석전 스님이 1910~1920년대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동명〉 등 잡지에 게재한 불교 논설을 분석하고 스님의 '불교의 전통과 근대의 중첩'을 살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선학에 대한 석전의 이해와 접근 방식'을 통해 석전 스님이 1913년부터 1932년에 걸쳐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선원〉 등에 기고한 23개의 글을 중심으로 선종과 관련한 자료를 발췌해 선종에 대한 석전 스님의 이해와 대중에게 전법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했다. 김호귀 교수는 이들 자료를 통해 석전 스님이 당시의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제시했던 선학에 대한 이해, 석전의 견해가 반영된 평설 등에 대해 고찰했다.

'석전 전서의 구도와 편찬의 방향'을 발표한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집성과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석전 전서 간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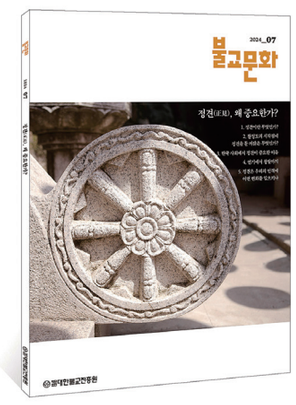
한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추진하는 석전 박한영 전사 편찬사업은 저술편과 어록보유편으로 나눠 1, 2차분으로 전서가 출간된다.

1차분으로 발행되는 전서는 〈석전시초〉 등 단독 저술과 잡지에 연재한 연재물 등이 주를 이루며, 총 10책 발간이 계획돼 있다. 특히, 1차분 전서에는 최근 송광사에서 발굴된 〈각종강요〉나 〈종교학〉 강의노트 등 신발굴 자료들이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 1차분 전서는 2026년 6월 동국대 개교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봉정될 예정이다.

2차분 전서는 잡지 소재 200여 편의 글, 새로 발굴한 비문, 현판 등을 탈초·주해·윤문해 7책으로 출판하고, 자료소개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는 자료를 3권의 자료집으로 2028년까지 펴낼 계획이다.

팔정도 '正見'은 왜 중요할까

진흥원, 월간 〈불교문화〉 7월호 발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불교계 대표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7월호(통권 제287호)를 발간했다.

7월호 특집은 '정견(正見), 왜 중요한가'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견이란 무엇이며 팔정도의 시작점에 정견을 둔 까닭,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정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일묵 스님은 '정견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견이란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지혜로, 행복을 바라보는 올바른 견해라고 설명했으며,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은 '팔정도의 시작점에 정견을 둔 까닭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견은 팔정도의 시작점이자 나침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필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견이 중요한 이유'에서 "사회가 욕망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정견은 극단으로 치닫는 마음을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 주고 올바른 견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구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연기에서 창발까지'에서 정견이란 모두가 일치해 합송할 수 있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전현수 전현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정견은 우리의 인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를 통해 "보는 방식이 바뀌면 감정, 가치관, 행동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 인격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며, 정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우리 함께해요' 캠페인은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과 타인을 알아가는 노력을 통해 소통의 공통분모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공부하는 불교, 불교교양대학-봉국사불교대학' '불교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나, 한국불교' '10분으로 배우는 불교, 무아(無我)', '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공부, 고통이 경험되도록, 아픔이 표현되도록'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성파시조문학상 시상…박영숙 작가 대상 수상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서

제41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이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개최됐다.

성파시조문학상 대상은 박명숙 씨의 '적벽'이 수상했다. 박명숙 작가는 서울 출신으로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이름을 올린 중진 작가다. 199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이후 작품 활동을 통해 중앙시조대상,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김상옥시조문학상, 노산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성파시조문학상에는 '도서관에서 추사를 만나다'를 쓴 조한일(제주, 2011년 〈시조시학〉 등단), '장경각 암각화'를 쓴 김정(부산, 2004년 〈현대시조〉 등단) 2인이 수상했다.


제41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이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개최됐다.

성파시조문학작가상에는 '가구박물관에서'를 쓴 조우리(광주, 200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잔도, 소금꽃 피다'의 윤현숙(부산, 2002년 〈부산시조〉 등단) 2인이 선정됐다.

한국문인협회는 시상에 앞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문인협회는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 전통 시조문학 발전을 위해 성파시조문학상을 제정, 운영하고 전국시조 백일장을 지원하는 등 시조문학상 발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성파 대종사는 한국문학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기에 모든 회원의 정성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시조문학인들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성파시조문학상이 41회를 맞게 된 것"이라며 "성파시조문학상이 시조시인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시조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어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축전·미디어아트 공모

오는 7월 8~26일 공모 진행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025년 '세계유산축전'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참여할 사업을 공모한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 소재한 지자체들이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들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 전시, 학술발표회·토론회 등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관할하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표현한 미디어아트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실경과 야외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 조성이 가능한 세계유산 또는 국가유산이다. 공모는 관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8월 중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된다. 3년 연속 지원 받은 지자체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해 공모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 세계유산축전에는 순천 갯벌을 보유한 전남 순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야 고분군을 보유한 경북 고령,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충남 공주·부여와 전북 익산이 전시, 공연,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